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일 '돈졸남'

김경필 작가 초청 특강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시민들의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연지아트홀에서 베스트셀러 '딱 1억만 모으시다'의 저자 김경필 작가 초청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딱 1억만 모으시다 : 돈졸나는 경제 잔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 작가는 행사 현장에서 바람직한 소비 습관과 효과적인 자산 증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비결을 공유한다.

대중에게는 '돈으로 혼졸내는 남자(돈졸남)'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행사 참여 신청은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가 접수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 요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은 지난 1차 신청을 통해 관내 농업기계 17대에 등화장치를 지원한 후 농가들의 추가 지원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신청 대상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여 등화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대상 장치는 야간이나 안개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농기계의 위치를 명확히 알려주는 야간반사판, 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으로 총 3개 품목이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 후 전문 업체가 직접 부착 작업을 진행하므로 고령의 농업인들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선 9기 공약 밑그림 그린다

고창군,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 출범... 각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23명 위촉

고창군이 민선9기 군정의 뼈대를 세울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한 고창의 대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고창군은 16일 '민선9기 고창군 민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책기획, 농림해양, 문화관광, 사회복지, 공동체, 청년, 지방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23은 현재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고

창군의 보물(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 예고종)과 사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총 개수다.

수백, 수천년을 지나 현재의 고창군에게 많은 가르침과 영감, 자부심을 전해온 국가유산처럼, 위원회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새겨 미래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민선 9기의 포부를 담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한 달간의 임기 동안 주 2회씩 회의를 거쳐 민선9기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선9기 슬로건과 군정목표 등을 함께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군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심덕섭 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수렴한 소중한 군민의 의견과 정책들을 행정의 눈이 아닌 군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듬는 사전 준비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공약을 다듬어내면 이를 바탕으로 민선9기 공약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양식 어가 대상 '어류 이동 병원' 운영

고수온 양식 생물 폐사 선제 대응... 관내 90여개 어가 직접 방문

정읍시가 예년보다 빠른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 생물 폐사를 막기 위해 16일 관내 90여 개 어가를 직접 방문하는 '이동 병원 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연안 수온은 지난해보다 1°C 이상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수온 상승 속도가 빨라 고수온 특보가 일찍 내려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식 생물의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는 양식 산업의 최대 위협인 고수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협력했다. 관련 부서 공무원과 공수

산질병관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꾸려진 진료반이 현장에 투입돼 어류 질병을 확인하고 처방을 내렸다. 감염이 의심되는 어류는 더욱 꼼꼼한 정밀 검사를 거쳤다.

이번 현장 지원은 양식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초기 진단에 집중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생충 구제 약품과 방역 예방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올바른 수산물 의약품 사용법과 어장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또 현장 상담을 진행해 어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농악 명인 '나금추 선생' 예술혼 기려

'금추문화제' 개최... 전북 무형유산 부안농악 상쇠 예능보유자·부안군립농악단 초대 예술감독 역임

부안군은 부안농악의 전승과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고(故) 나금추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나금추 선생 8주기 추모제 '금추문화제'가 지난 13일 매창테마공원 광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7-1호 부안농악 상쇠 예능보유자이자 부안군립농악단 초대 예술감독을 역임한 나금추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부안농악의 전통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농악보존회와 전통예술원 타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합동 성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매창테마공원 광장에서 추모공연과 사진전이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나금추 선생의 생전 활동 모습과 부안농악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선생의 삶과 예술세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어 나금추 선생의 제자들이 마련한 추모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은예기무를 비롯해 성악과 국악



이 어우러진 협연 무대, 부안농악보존회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자들은 각자의 예술세계를 통해 스승의 가르침과 예술혼을 기리며 뜻깊은 무대를 선보였다.

부안농악보존회 관계자는 "나금추 선생은 부안농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지역 전통 예술계의 큰 스승"이라며 "이번 추모제가 선생의 예술정신을 되새기고 부안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금추 선생은 1938년 태어나 16세에 국극단 활동을 계기로 농악의

길에 들어섰으며 춘향여성농악단 상쇠를 시작으로 수많은 여성농악단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쇠로 명성을 쌓았다.

1976년 전북농악경연대회 개인 연기상, 1983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 수상에 이어 198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이리농악단 상쇠로 참가해 개인 연기상과 단체 대통령상 수상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은퇴 후에는 부안에 정착해 전국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부안농악의 전승과 발전에 헌신했고 2018년 6월 별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지류·카드·모바일(QR) 고창사랑상품권 모든 서비스 일시 중단... 내달 2일 재개

고창군이 오는 7월2일 오전 9시부터 고창사랑상품권 이용 편의성과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 운영 플랫폼을 한국조폐공사 통합플랫폼 '착(Chak)'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전환 작업에 따라 고창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관련 서비스는 17일부터 7월2일 오전 8시59분까지 약 2주간 일시 중단된다.

이번 중단 기간에는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카드형 상품권 충전과 결

재, 모바일 상품권 결제 등 고창사랑상품권 관련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고창사랑상품권 이용자는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는 7월 2일부터 한국조폐공사 '착(Chak)'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고창사랑카드와 보유 잔액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지류상품권 환전과 고창사랑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QR바코드 결제를 이용하는 약 700개소의 모바일 가맹점은 조폐공사와 고창군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QR바코드 교체와 사용 방법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고창사랑카드 앱 변경과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른 군민과 가맹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상가를 직접 방문에 안내하고 있으며, 현수막, 안내문,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달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TF팀 구성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통망 구축... 노선 체계 전면 재정비

정읍시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최근 지역 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생활권이 달라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양상도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향상하고 실제 이용 수요에 부합하도록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관리, 교통시설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모아 전담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전체 시내버스 노선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정읍시 여건에 딱 맞는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버스에 탑승해 노선을 확인하는 실차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별 승강장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수요와 생활



권을 파악한다. 현행 노선 운영 체계를 진단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살피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내버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시는 전담 조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운행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탑승객이 많은 구간은 서비스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반면 노선이 겹치거나 이용률이 낮은 구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특성과 대중교통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